

영논항의 속성 재조명*

문귀선

(한성대학교)

Moon, Gui-Sun. 2010. Null Arguments Redux.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8(1). 67-92.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claim that the null arguments in both subject and object positions should be identified as pro in the subject/object-drop languages such as Korean, Japanese, Chinese, and so on, arguing against Huang's (1984, 1991) null-topic variable analysis and the option of NP-ellipsis for sloppy identity reading proposed by Abe (2009). Furthermore, it is argued that pro in Korean shows the same pattern as English pronouns in relation to its antecedent: Just as English pronouns can be classified as referential pronouns and bound (variable) pronouns depending on the properties of their antecedents, Korean pros can be distinguished as referential pros and bound pros. It is thus claimed that pro is identified as referential if its antecedent is a referring expression, and that it is determined as bound pro if its antecedent has quantificational property. Bound pro can be further differentiated from bound variable pro depending on whether it is c-commanded by its antecedent. Likewise, ambiguity arises according to the properties of pros: strict reading is derived when pro is identified as referential, whereas sloppy reading is brought out when a null argument is determined as bound (variable) pro.

Key Words: null arguments, pro, null-topic, NP-ellipsis, referential pro, bound pro, bound variable pro, strict reading, sloppy reading

* 본 연구는 2009년도 한성대학교 연구년 지원 과제임. 본 논문은 대한언어학회/현대문법학회/한국생성문법학회 주최 2009년 봄 공동학술대회와 (사)한국언어학회 2009 겨울학술대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 발전시킨 논문이다. 이 두 학술대회에서 논평과 질문을 해주신 분들과 본 논문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적하여 논문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분들께 감사드린다.

1. 서론

인간의 언어에는 의미역이 부여되는 논항의 위치에 영논항(null arguments)을 허용하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들이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를 들면, 영어와 같은 유형의 언어들(English-type languages)은 주어-동사 사이의 성, 수, 격에 따른 일치현상이 주어와 3인칭 단수로서 동사의 시제가 현재시제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의 문법적 자질이 동사에 실현되지 않는 점에서 일치소(AGR)가 약한 언어에 속한다. 그리고 이들 언어는 (1)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담화문맥으로부터 제공되는 정보를 화자와 청자가 공유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장내의 주어와 목적어의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다.¹⁾

(1) A: Who does Mary love t ?

B: *(She) loves Bill.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태리어, 스페인어와 같은 언어들에는 주어의 성, 수, 격에 따른 형태론적 굴절(morphological inflection)을 동사에서 실현시키고 있으므로 풍부한 일치소(rich AGR)를 지닌 언어로 간주되어져왔다. 따라서 이들은 주어-탈락(subject-drop)의 필요조건인 풍부한 일치소를 지니는 언어로서 주어-탈락을 허용하고 있음을 (2)의 예들이 보여주고 있다.²⁾³⁾

(2) a. e faranno molte fotografie (Italian)

'(They) will take many pictures.'

b. e baila bien (Spanish)

'(He/she) dances well.'

그러나 이들 언어에서는 목적어와 동사 사이에는 일치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담

1) 익명의 논평자에 의하면 영어의 경우에도 목적어 생략이 가능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예문에서 'bread'를 지칭하는 대명사 'it'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주어/목적어 탈락이 더 선호되는 한국어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i) Take bread. Cut e carefully (and arrange e orderly) (Massam Diane 1992)

2) Shim(2003)에 의하면 스페인어의 경우 풍부한 일치소가 주어탈락의 필요조건이지만 e habla español?의 경우는 탈락된 주어가 분명 3인칭임을 동사 어미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sin 'he'와 ella 'she'의 가능성이 다 존재하므로 탈락된 주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담화 차원에서의 정보도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담화 문맥이 제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어탈락이 비문법적인 문장을 초래하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풍부한 일치소가 주어탈락을 인허하고 있는 언어이다. 불어의 경우는 Spanish, Italian과 같은 Romance 언어에 속하지만 주어-탈락을 허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3) (2a)와 (2b)는 Moon(1989) (1c)와(2a)의 예문을 각각 재인용했다.

화 문맥의 조건이 만족된다 할지라도 목적어-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어-탈락언어들에 있어서 주어자리의 영논항을 대표적인 *pro*로 일컫는다.

이외에도 영논항을 허용하는 언어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와 같은 언어들도 있지만 이들 언어는 이태리어, 스페인어와 같은 주어-탈락언어(subject-drop languages)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한국어, 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에는 주어-동사의 일치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어-탈락 언어와는 달리 주어의 문법적 자질이 형태론적으로 동사에 전혀 실현되지 않으므로 일치소에 의한 주어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담화문맥으로부터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나타내는 논항의 경우 (3)-(4)의 예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생략하는 편이 오히려 훨씬 더 자연스럽다.

- (3) Speaker A: 메리1가 누굴 좋아하니?
 Speaker B: ?그녀는/e1 빌을 좋아한다.
- (4) Speaker A: 누가 메리2를 보았니?
 Speaker B: 존이 ?그녀를/e2 보았어.

나아가서 담화 차원이 아닌 문장 차원에서도 주어-목적어가 탈락될 수 있음을 (5)의 예문이 보여주고 있다(Moon 1989).⁴⁾

- (5) a. [존1이 [e1 메리를 보았다고] 말했다] (e = 존)
 b. 존은 메리가 보았다고 말했다.
- ① 존1은 [메리2가 [e2 e1 보았다고] 말했다] (e1=존, e2=메리)
 'As for John1, Mary2 said she2 saw e1.'
- ② 존1은 [e1 [메리2가 e3 보았다고] 말했다] (e1=존, e3=someone)
 'According to John1, he1 said Mary2 saw someone3.'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인 한국어에 있어서의 영논항에 대한 *pro* 분석 (Lee 1987, Moon 1989, Kim, Soowon 1999, 등등)의 타당성을 지지할 것이고, 나아가서 한국어의 *pro*를 영어의 대명사의 속성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의 *pro*는 영어의 대명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clitic이나 약대명사를 포함하는 언어가 있듯이 *pro*를 어휘항목으로 포함하는 언어가 있다는 Holmberg (2005)의 제안과 일맥상통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영어의 대명사를 지시적 대명사(referential pronouns), 결속변항 대명사(bound variable pronouns), 또는 E-유형 대명사(e-type

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영논항은 지시적 *pro*로 분석되어야 함을 제안할 것이다.

pronouns)로 그 기능을 구분할 수 있듯이 *pro*도 지시적 *pro*와 결속변항 *pro* 뿐 아니라 심지어 E-유형 대명사의 속성까지 지니고 있음을 관찰하고 *pro*의 속성이 영어 대명사와 일치함을 보여줄 것이다.⁵⁾

나아가서 기존의 *pro*로 간주되어져 왔던 공백 가운데는 *pro*가 아니라 명사구 생략(NP-ellipsis)의 결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Abe(2009)의 제안에서 선행어와 공백 간의 성분통어 가능성에 기반을 둔 명사구 생략 분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선행어와 성분통어가 되지 않는 공백이 모두 명사구 생략으로 인한 공백이 아니라 *pro*로서 지시적 *pro*와 결속 *pro*의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와 같은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의 영논항은 모두 *pro*로서 선행사에 따라 지시적 *pro*와 결속 *pro*의 속성을 갖게 되므로 엄밀지시해석(strict reading)과 이완지시해석(sloppy identity reading)의 중의적 해석이 발생함을 주장할 것이다.

2. 영목적어의 정체(Identification of Null Objects)

2.1 영주제-변항 분석

Huang (1982, 1984, & 1991)에 의하면 이태리어나 스페인어와는 달리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는 굴절소(infl)의 일치(agreement)가 빈약(poor)한 대신에 주제가 돌출(topic prominent)하는 언어로서 이들 언어에서 발생하는 영논항(null arguments)은 영주제(null topic)에 의해 결속(bound)되는 변항(variable)으로 보아야한다는(identified) 분석을 제안하고 있다. Huang은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의 영논항을 대표적인 *pro*(standard *pro*)로 분석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풍부한 굴절소(rich inflection)를 지닌 언어에서만 발생하는 소위 말하는 *pro*-탈락(*pro-drop*) 현상은 풍부한 굴절소(rich

5) 양동휘(1980, 1986)와 Lee, Hyunwoo (1997)에서도 한국어의 영대용어(zero anaphor)와 영어 대명사 간의 비교를 언급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말하는 (i)과 같은 donkey-대명사와 (ii)의 E-유형 대명사(Evans 1980)를 구별하지 않고 (i)과 (ii) 문장들에서 등장하는 비결속 대용어적 대명사(unbound anaphoric pronouns)는 모두 E-유형 대명사로 본다 (Moltmann 2006).

- (i) a.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quantificational donkey sentence)
- b. Most farmers who owns a donkey beasts it. (")
- c. Someone who owns a donkey beats it. (")
- d. If a farmer owns a donkey, he usually beats it. (conditional donkey sentence)
- e. Someone broke into the house, and he stole the silver. (conjunctive donkey sentence)
- (ii) The man who gave [his paycheck] to his wife is wiser than the man who gave [it] to his mistress (Karttunen 1969)

inflection)를 지니고 있지 않은 언어에서 관찰되는 pro-탈락의 경우와는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Huang의 직관에 의하면 (6a)에서 내포절의 영목적어(embedded null object)가 'Zhangsan'을 선행어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6b)와 같이 한 문장 내에서 pro는 주어자리의 영논항에만 가능하고 목적어자리는 영주제(null topic)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이라는 영주제 분석(null topic analysis)을 제안하고 있다.

- (6) a. *Zhangsan₁ xiwang [Lisi keyi kanjian e₁]
 hope can see
 'Zhangsan₁ hopes that Lisi can see e₁'
 b. Zhangsan₁ xiwang [e₁ keyi kanjian Lisi]
 hope can see
 'Zhangsan₁ hopes that e₁ can see Lisi'

이러한 Huang의 분석에 의하면 (7a)과 같은 한국어 예문과 (7b) 일본어 예문에서 영논항은 '존'의 해석이 되지 않고(e ≠ 존) '메리'의 해석(e = Mary)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 자리는 pro가 될 수 있으나 목적어는 영주제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으로서 주어/목적어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 (7) a. A: 누가 메리를 보았니?
 B: 존은 너가 e 보았다고 말했다.
 b. A: Dare-ga Mary-ni atta no? 'Who saw Mary?'
 B: John-wa anata-ga e atta to utta.
 'John said you saw e.'

Abe(2009)도 (7a) 한국어 예문에 상응하는 일본어 (7b)에서 영목적어가 변항이라는 Huang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8)-(9)의 예들을 추가로 들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담화문맥으로부터 (8-9)와 같이 양화사구(QP) 간의 작용역에 의한 중의적 해석을 근거로 영목적어는 영주제(null-topic)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이라는 Huang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 (8) a. Zyosi-no dareka-ga taitei-no sensei-o sonkei-siteiru
 girl-Gen someone-Nom most-Gen teacher-Acc respect
 'Some girl respects most teachers.'
 b. Dansi-no dareka-mo [e] sonkei-siteiru
 boy-Gen someone-also respect

'Some boy also respects e.'

(9) a. taitei-no sensei-o zyosi-no dareka-ga sonkei-siteiru

'As for most teachers, some girl respects.'

b. Dansi-no dareka-mo [e] sonkei-siteiru

'Some boy also respects e.'

(8a)는 QP의 표면 어순(surface order)에 따른 해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작용역 중의성(scope ambiguity)이 발생하지 않으나 (8b)에서는 영목적어의 내용으로 무엇이 제공되느냐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Takahashi 2008). 다시 말하자면, (8b)에서 첫 번째 해석은 만약 NP가 생략되었다고 하면 선행문인 (8a)의 목적어인 'taitei-no sensei-o' (대부분의 선생님)을 영목적어 자리에 복원함으로써 '어느 소년이 대부분의 선생님을 존경한다'에서 (8a)의 '대부분의 선생님'과 다른 '대부분의 선생님'으로 해석됨으로써 이완지시해석(sloppy identity reading)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영목적어를 pro라고 하면 pro의 해석은 (8a)의 목적어가 지칭하는 같은 집합의 '대부분의 선생님'으로 해석됨으로써 두 번째 해석은 엄밀지시해석(strict reading)이 된다는 것이다. 이 두 해석에서 모두 주어와 첫 번째 연결문(first conjunct)과 병행(parallel)해서 영목적어(null object)의 영역을 포함(scope over)하기 때문에 양화사간의 영역 중의성(scope ambiguity)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8)의 예문에서 목적어를 뒤섞기(scrambling)한 (9)의 경우에는 문장이 중의적으로 해석된다고 한다(Kuroda 1971). 즉, (9a)가 중의적이고 (9b)에서도 중의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9b)에서 영목적어가 주어 QP의 영역을 포함(scope over)하는 해석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적어 자리에 있던 영주제(null topic)가 문두로 이동해서 목적어 자리의 변항을 결속하고 있다고 해야 만이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영목적어가 본래 자리에 남아있다고 한다면 영목적어가 넓은 영역(wide scope)의 해석을 취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명사구 생략(NP-ellipsis) 분석이나 pro 분석으로는 (9b)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므로 Huang의 영주제 분석(null topic analysis)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왜냐하면 영주제(null topic)는 문장의 가장 높은 자리인 문두에 나타나서 주어 QP의 영역을 포함(scope over)하기 때문에 넓은 영역(wide scope)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Huang의 분석에 의하면 영목적 위치에 있던 영주제가 문두로 이동해 나가서 영목적어 자리의 흔적을 결속함으로써 영목적어가 변항이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례(counter examples)로서 영목적어의 선행어(antecedent)가 발화된 담화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내에 있는 선행어와 동지시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10)과 같은 예문을 근거로 하여 Moon (1989)은 Huang의 분석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고 있다.6)

- (10) a. 존₁은 [메리₂가 [e₂ e₁ 보았다고] 말했다]
 'As for John₁, Mary₂ said e₂ saw e₁.'
- b. 존₁이 엄마에게 [형이 e₁ 때렸다고] 불평했다.
 'John₁ complained to his mom that his₁ brother hit e₁.'
- c. 대부분의 도둑들은 한명의 경찰이 e 불잡았다고 말했다.
 (i) 대부분의 도둑들₂은 [한명의 경찰이₁ [e₁ e₂ 불잡았다고] 말했다].
 'As for most of the thieves₂, a policeman₁ said e₁ arrested e₂.'
 (ii) [대부분의 도둑들₁은 [e₁ [한명의 경찰₂이 e₁/e₃ 불잡았다고] 말했다].
 'According to most of the thieves₁, e₁ said a single policeman₂ arrested e₁/e₃.'

Huang의 영주제-변항 분석에 의하면 (6a)와 같은 예문을 들면서 한 문장 내에서 내포절의 영목적어의 선행어를 선택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10)과 같은 문장들에서는 내포절의 영목적어가 한 문장 내에 있는 선행어와 동지시 해석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⁷⁾

이외에도 Huang의 영주제(null topic) 분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는 영목적어가 섬(island) 속에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담화 문맥을 가정해보자

- (11) a. A: 나는 어제부터 이 모자₂가 여기 있는 걸 봤는데 누가 두고 갔나봐.
 B: 철이가 [e₁ e₂ 두고 간]사람₁을 잘 알고 있어.
 b. A: 아버지₁가 차₂를 누구에게 팔았니?
 B: 저는 [e₁ e₂ 누구에게 팔았는지](를) 잘 몰라요.

(11a)에서 화자 B의 발화는 관계절 속의 영목적어가 선행 담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모자'를 지칭하는 해석이 되고 (11b)의 화자 B는 의문사-섬(wh-island) 속에 위치한 영목적어가

6) (10a)의 문장은 Huan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목적어가 담화상에서 someone을 칭하는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다.

- (i) 존₁은 [e₁ [메리₂가 e₃ 보았다고] 말했다 ((5b)의 ②의 해석)
 "As for John₁, e₁ said Mary₂ saw someone₃.'

영목적어가 선행 발화된 담화문맥 상의 지시적표현을 지칭하는 해석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항으로 반드시 분석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곧 본 논문에서 논의할 것이다.

7) (10c)에서 양화사구를 도입함으로써 앞으로 영목적어가 명사구 생략에 의한 다른 집합의 '대부분의 도둑들'이 아니라 pro로서 그 말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도둑들'과 같은 집합의 '대부분의 도둑들'임을 암시하고 있다.

선행 담화에서 언급하고 있는 ‘차’의 해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문들이 비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영목적어가 영주제의 이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이동에 의한 도출이었다면 섬계약(island constraints)에 의하여 비문으로 판정이 낮아야 하는 예들이다.

따라서 영주어와 달리 영목적어는 pro가 아니라 영주제의 이동에 의한 변항이라는 Huang의 제안을 수용하여 이를 지지하는 Abe의 주장은 적어도 한국어 예문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와 같은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에서는 주어/목적어 자리의 영논항은 각각 pro/변항으로서 비대칭이 아니라 모두 pro임을 논증해 나갈 것이다.

2.2 동사구 생략 분석

지금까지 우리는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서 목적어의 공백(gap)이 변항이 아님을 보여주었고 주어 뿐 아니라 목적어 자리의 영논항도 그것의 선행어가 담화 문맥 차원에서뿐 아니라 문장 내에서도 제공될 수 있음을 한국어의 예문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공백(gap)으로 나타나는 영논항이 변항이 아니라고 해서 pro라고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uang(1991)은 공백 가운데는 동사구 생략(VP-ellipsis)의 결과로 생성된 공백이 있는데 이를 pro의 공백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이완지시해석(sloppy identity reading)의 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Otani & Whitman(1991)은 (12)와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 일본어에서도 동사구-생략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12) John-wa [zibun-no tegami]-o suteta. Mary-mo [e] suteta
 -Top self-Gen letter-Acc discarded -Also discarded
 ‘John threw out his letter. Mary did too.’

(12)에서 영목적어를 단순 대명사적 pro로 간주한다면 ‘존의 편지’를 메리도 던졌다는 엄밀 지시해석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메리가 ‘메리 자신의 편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연결문(the first conjunct)에서 동사는 굴절소(Infl)로 상승(raise)된 후 동사의 흔적(trace)과 목적어 ‘자신의 편지’가 VP를 이룬다. 이 VP가 두 번째 연결문(conjunct)에 있는 공백의 선행어가 된다는 것이다. 즉 두 번째 연결문에서도 동사가 굴절소(Infl)로 상승된 후 목적어와 동사의 흔적으로 구성되는 공백의 선행어가 첫 번째 연결문에서 생성된 목적어와 동사의 흔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12)에서 두 가지 해석 즉, 엄밀지시해석과 이완지시해석이 발생하는 현상은 (13)과 같은 전형적인 영어의 동사구 생략(VP-ellipsis) 구문의 분석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13) John threw his letter, and Mary did too.

- (i) *his* as pronoun: referential reading : strict reading 'John's letter'
 (ii) *his* as variable bound by lamda operator: sloppy reading 'Mary's letter'

Otani & Whitman(1991)은 (14)의 예문이 이완지시해석(sloppy reading)과 동사구-생략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14)에서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생략할 수 있는 동사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4) Zibun-no hatake-no ninzin-ga McGregor ozisan-no daikoobutu desita.

self-Gen garden-Gen carrot-Nom Mr.-Gen big-favorite was

Peter-mo e daisuki desita.

-also very-fond-of was

'Carrots from self's garden were Mr. McGregor's big favorite. Peter was also very fond of [e].'

(14)에서 두 번째 문장은 '피터도 역시 McGregor씨의 정원의 당근을 매우 좋아한다.'로 해석됨으로써 동사구 생략이 발생한 문장으로 분석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완지시적해석이 가능하지 않고 엄밀지시해석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문을 통하여 Otani & Whitman은 동사구 생략이 가능한 문장에서는 병행조건(parallelism constraint)이 만족되어지고 따라서 이완지시적 해석이 발생하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Oku(1998)와 Abe(2006)는 동사구 생략의 경우에만 병행조건(parallelism constraint)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동사구 생략이 불가능한 영주어를 포함하는 문장의 경우에도 병행제약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이완지시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15)의 예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15) a. Zibun-no hatake-no ninzin-ga McGregor ozisan-no daikoobutu desita.

self-Gen garden-Gen carrot-Nom Mr.-Gen big-favorite was

[e] Peter-mo daisuki desita.

-also very-fond-of was

'Carrots from self's garden were Mr. McGregor's big favorite, and [e] was Pete's big favorite, too.'

b. John-wa zibun-no tuma-ga kiree da to omotteiru.

-Top self-Gen wife-Nom beautiful be Comp think

Bill-mo [e] kiree da to omotteiru.
 -also beautiful be Comp think

'John thinks self's wife is beautiful. Bill also thinks [e] is beautiful.'

Otani & Whitman (1991)의 분석에 따르면 (15)의 예문들은 동사구 생략으로 분석할 수 없으므로 이완지시해석은 불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서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3 명사구 생략 분석

Oku(1998)와 Kim(1999)은 Otani & Whitman의 영목적어를 위한 동사구 생략 분석을 반박하고 영목적어는 모두 명사구 생략에 의한 도출임을 제안하고 있다. 명사구 생략 분석은 영목적어뿐 아니라 영주어에서도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하고 오로지 병행제약만을 요구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Oku(1998)와 Kim(1999)은 영논항은 단순히 pro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 생략에 의해서 공백이 도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be(2009)에서도 명사구 생략에 의한 공백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로는 (16)의 예문에서 만약 공백(e)이 pro(empty pronoun)이라면 결속이론(Binding Theory)의 B 조건을 어기게 되므로 (16)의 영목적어를 pro로 볼 것이 아니라 명사구 생략의 결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⁸⁾.

(16) a. John-ga zibun-o hihansita ra, Mary-mo [e] hihansita.
 -Nom self-Acc criticized and -also criticized

'John criticized himself and Mary criticized [e].'

b. Hotondo subete-no hito-ga zibun-o hihansita ga.
 almost every-Gen person-Nom self-Acc criticized but
 John-dake-wa [e] hihansinakatta.

only-Top didn't-criticized

'Almost everyone criticized self, but only John didn't criticize [e].'

(16)에서는 첫 번째 연결문(first conjunct)에 재귀사 'self'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zibun-o'가 영목적어 자리에서 생략되었다고 하면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8) Abe의 명사구 생략 분석에 의하면 (16a)는 '메리도 존을 비난했다'는 엄밀지시해석은 가능하지 않고 '메리도 메리 자신만을 비난했다'는 이완지시해석만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게 된다. 그러나 (16a)는 중의적 문장으로 이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한다.

(17) John-wa [e] hihansita.

-Top criticized.

①*John criticized himself.

②John criticized someone else.

그리고 Kim(1999)에 의하면 (17)에서는 명사구 생략으로 영목적어 자리에 '존'이 생략되었다고 보면 결속이론의 C 위반으로 '존이 자신을 비난했다'는 첫 번째 해석은 도출될 수 없어서 제거되므로 당연히 담화상의 누군가를 비난했다는 두 번째 해석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Abe에 의하면 일본어 예문 (18)에서 영주어와 영목적어 모두에 있어서 분열 선행어(split antecedent)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명사구 생략의 분석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18) Mary-wa John-to kekkon-si, Susan-wa Bill-to rikon-sita ga,
-Top -with married -Top -with divorced but

a. dotiramo [e] kuyadeiru.

both regret

b. dotiramo [e] matigai datta to omotteiru.

both mistake was Comp think

'Mary married John and Susan divorced Bill, and (a) both regret [e].

(b) both think that [e] was a mistake.'

(18a)는 영목적어의 예로서 '메리는 존과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수잔은 빌과 이혼한 것을 후회한다'로 (18b)는 영주어의 예로서 '메리는 존과 결혼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하고 수잔은 빌과 이혼한 것이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로 해석함으로써 영목적어와 영주어 모두 분열 선행어 해석을 허용한다는 점은 명사구 생략에 의한 공백임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와 같이 한 문장 내에서 영논항(intra-sentential anaphora)의 내용을 복구할 수 있는 선행어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영논항을 Abe는 명사구 생략에 의한 공백이 아니라 결속 대명사(bound pronouns)로 취급하고 이를 진정한 pro로 간주하고 있다.

(19) John_i-wa [e]_i anata-ni attat to itta.

-Top you-Dat saw Comp said

'As for John_i, he_i said he_i saw you'

Huang은 (19)와 같은 예에서 영주어만을 pro로 간주하고 있고 Kim(1999)에서는 이를 명사구 생략의 예로 취급 한다. 하지만 Abe는 이를 결속 대명사(bound pronoun)로 취급할 때만이 양화명사구를 포함하고 있는 (20)에서 올바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0) Taitei-no sensei-ga [e] kyoo-no gogo kuru to itta.
 most-Gen teacher-Nom today-Gen afternoon come Comp said
 'Most teachers said [e] would come this afternoon.'
- a. Taitei-no sensei-ga [e]₁ kyoo-no gogo kuru to itta.
 'Most teachers said that they would come this afternoon.'
- b. ??Taitei-no sensei-ga [taitei-no sensei-ga] kyoo-no gogo kuru to itta.
 'Most teachers said that most teachers would come this afternoon.'

(20)의 영논항을 명사구 생략으로 분석하면 영주어의 위치에 'taitei-no sensei'(대부분의 선생님)가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20b)와 같이 되어 '대부분의 선생님'이 같은 집합의 선생님들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같은 선생님들로 해석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21)과 같은 한국어 예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다.

- (21)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e]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찾아오길 기대한다.
 a. 대부분의 부모님들₂은 e₂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찾아오길 기대한다.
 b.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의 자식들이 어버이날에 찾아오길 기대한다.

(21b)에서는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식들이 찾아오기를 기대한다'는 해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즉 (20)-(21)이 (b)와 같이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사구 생략 분석을 여기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Abe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명사구 생략이 문장 내 공백(intra-sentential gap)에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을 Abe는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 (22) a. John-wa taitei-no sensei-o kiratteiru node, [e] hinansita.
 -Top most-Gen teacher-Acc hate because criticized
 'Because John hates most teachers, [he] criticized [e].'
- b. John-wa taitei-no sensei-o kiratteiru node, [taitei-no sensei-o] hinansita.
 'Because John hates most teachers, [he] criticized most teachers.'

- c. Taitei-no sensei-o kirateiru gakusei-ga [e] hinansita.
 most-Gen teacher-Acc hate student-Nom criticized
 'The student who hate most teachers criticized [e].'
- d. Taitei-no sensei-o kirateiru gakusei-ga [taitei-no sensei-o] hinansita.
 'The student who hate most teachers criticized most teachers.'

Abe에 의하면 (22)에서는 '미워하는 대부분의 선생님'과 '비난하는 대부분의 선생님'이 서로 다른 집합의 선생님들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다시 명사구 생략 분석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논항이 pro인지 아니면 명사구 생략으로 인한 공백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pro 또는 명사구 생략으로 인한 공백인지를 문법이 식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4 Pro와 명사구 생략의 식별

그럼 어떻게 영논항을 명사구 생략과 pro로 구별하여 판단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Abe는 (23a)와 같은 전반적인 생략현상(VP ellipsis, sluicing, N'-deletion, Gapping, Stripping 등)에 적용되는 일반화 조건을 준수하는 것이 명사구 생략현상으로서 (23b)와 같은 일반화를 따른다고 기술하고 있다.

- (23) a. Ellipsis cannot hold when the antecedent c-commands the ellipsis site.
 b. NP Ellipsis does not apply to a null argument when it is c-commanded by its antecedent.

영논항이 그것의 선행어에 의해 성분통어(c-commanded) 되면 명사구 생략의 해석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23b)와 같은 일반화조건에 따르면 (20)-(21)에서는 영주어와 그것의 선행어 사이에 성분통어 관계가 성립되므로 명사구 생략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22)의 예들에서는 성분통어가 되지 않으므로 명사구 생략의 해석인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24) John-wa zibun-no musume-o kiratteiru ga, Bill-wa [e] suiteiru.
 -Top self-Gen daughter-Acc hate but -Top like
 'John hates his own daughter but Bill likes [e].'

(24)에서 영논항을 선행어가 성분통어 하지 않으므로 명사구 생략 분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이완지시 해석인 ‘빌은 빌 자신의 딸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나온다고 한다.

- (25) John-wa zibun-no musume-ni sensei-ga [e] ai-tagatteiru to itta.
 -Top self-Gen daughter-Acc teacher-Nom want-to-see Comp said
 ‘John told his own daughter that the teacher wanted to see [e].’

(25)의 경우에는 영논항을 선행어인 ‘zibun-no musume (자신의 딸)’이 성분통어 하고 있으므로 명사구 생략으로 분석하기 불가능하고 따라서 이완지시해석인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해석은 나올 수가 없고 단지 pro의 해석인 ‘선생님이 존 자신의 딸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존이 자신의 딸에게 말했다’는 의미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상호대명사(reciprocal pronouns)를 포함하는 문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 (26) a. John to Mary-wa otagai-no musume-o kiratteiru ga,
 and -Top each other-Gen daughter-Acc hate but
 Bill to Susan-wa [e] suiteiru.
 and -Top like
 ‘John and Mary hate each other’s daughters but Bill and Susan like [e].’
 b. John to Bill-wa otagai-no musume-ni sensei-tati-ga [e]
 and -Top each other-Gen daughter-Dat teacher-pl-Nom
 ai-tagatteiru to itta.
 want-to-see Comp said
 ‘John and Bill told each other’s daughters that the teachers wanted to see [e].’

(26a)에서는 ‘otagai-no musume(서로서로의 딸)’이 영목적어를 성분통어하지 않으므로 명사구 생략 분석에 의하여 영목적어 자리에 ‘otagai-no musume’이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빌과 수잔의 딸을 좋아한다’는 해석이 된다. 반면에 (26b)에서는 ‘otagai-no musume’이 영목적어를 성분통어 하고 있으므로 영목적어 pro로서 선생님들의 ‘서로서로의 딸’들이 아니라 앞 절에 선행어로 나와 있는 존과 빌의 ‘서로서로의 딸의 해석’을 갖게 된다. Abe는 선행어가 영목적어를 성분통어 하지 않으면 명사구 생략으로 인한 공백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관계절을 포함하는 (27)과 같은 예문들을 추가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 (27) a. Zibun-no musume-o kiratteiru hito-ga Bill-ni [e] aise yo to
self-Gen daughter-Acc hate person-Nom -Dat love Comp
tyuukosusita.
advised
'A person who hates his/her own daughter advised Bill to love
[e].'
- b. Otagai-no musume-o kiratteiru hutari-ga Mary to Susan-ni [e]
each other-Gen daughter-Acc hate two-Nom and -Dat
aise yo to tyuukokusita.
love Comp advised
'Two persons who hate each other's daughters advised Mary and
Susan to love [e].'

(27a)에서는 '빌 자신의 딸을 사랑하라고 충고했다'는 의미이고 (27b)는 '메리와 수잔의 서로 서로의 딸을 사랑하라고 충고했다'는 이완지시적 의미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명사구 생략 결정을 위한 일반화조건에 의하면 선행어에 의해 영논항이 성분통어 될 경우는 순수한 pro로 판정되어야 하고 이럴 경우는 엄밀지시해석이, 그렇지 않으면 명사구 생략에 의한 공백으로서 이완지시적 해석이 발생한다는 Abe의 분석을 살펴보았다. 영어의 동사구 탈락 현상에 상응하는 문장은 일본어나 한국어와 같은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서는 명사구 생략 문장으로 표현되어짐을 알 수 있다. William(1977)의 (28)과 같은 영어의 동사구-탈락 구문에 대한 설명을 먼저 살펴보자.

- (28) a. John saw everyone before Mary did [e].
b. Yes, and Bill did [e] before Sally did [e].

(28a)에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i) VP 'see everyone'을 공백 자리에 그대로 복사한 해석, 즉 '메리가 본 사람과 John이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John saw everyone and then Mary saw everyone.)'는 해석이다. (ii) 두 번째 해석은 everyone을 QR 한 후에 VP 'see t'를 공백 자리에 복사하면, 'for every person x, John saw x before Mary saw x.'와 같이 연산자에 의해 변항이 모두 결속되므로 '존과 메리가 같은 사람들을 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28b)에서는 첫 번째 해석만 가능하다. (28a)의 VP 'see everyone'을 두 군데의 공백 VP에 복사함으로써 첫 번째 해석인 '빌과 Sally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는 해석만 도출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LF 복사는 QR을 먼저 적용한 후 가능하므로 이미 VP 'see everyone'을 LF 복사했으므로 더 이상 QR을 할 수 없게 되어

두 번째 해석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고 있다.

Abe는 영어의 동사구 생략에 해당하는 (28)의 예문을 일본어에 적용하여 비교를 시도했다. 영어 (28)에 해당하는 일본어 (29)의 예문은 명사구 생략으로 나타난다.

- (29) a. John-wa daremo-ni [Mary-ga e au mae-ni] atta
 -Top everyone-Dat -Nom see before saw
 'John saw everyone before Mary saw [e].'
 b. Sosite, Bill-mo [e] [Sally-ga [e] au mae-ni] atta.
 and -also -Nom see before saw
 'And Bill saw [e] before Sally saw [e].'

(29a)는 (28a)의 경우처럼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것이다. (i) 첫 번째 해석은 'daremo-ni (모든 사람들)'을 공백에 복사함으로써 '서로 다른 사람을 보았다'는 해석이다.⁹⁾ (ii) 두 번째 해석은 'daremo-ni'를 QR 한 후 그것의 흔적을 공백 자리에 복사함으로써 '존과 메리가 같은 모든 사람을 보았다'는 것이 두 번째 해석이 된다고 한다. 영어 예문 (28b)와 달리 (29b)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한다. 명사구 생략 분석을 따르면 'daremo-ni(모든 사람)'을 생략된 자리에 복원한 후 영어 경우와 같은 순서상의 충돌로 인해 QR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두 번째 해석을 얻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결국 pro로 분석하면 두 번째 해석이 가능해진다. 첫 번째 영목적어는 'daremo-ni'가 명사구 생략에 의하여 탈락되었다고 함으로써 얻어지고 두 번째 영목적어는 첫 번째 QP에 의해 결속되는 pro로 분석함으로써 두 번째 해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0)의 예가 다시 선행어와 공백간의 성분통어 관계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 (30) John-wa [Mary-ga [e] au mae-ni] daremo-ni atta.
 -Top -Nom see before everyone-Dat saw
 'John saw everyone before Mary saw [e].'

Abe의 분석을 따르면 (29a)와 달리 (30)에서는 선행어가 공백을 성분통어 하지 않으므로

9) (29a)에서 선행어는 영논항을 성분통어 하므로 명사구 생략이 될 수 없으므로 'daremo-ni'를 그대로 공백에 복사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Abe는 자신의 기존의 분석 방향에서 벗어나서 앞의 영어 예문과 일치하는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 Abe의 분석을 엄밀히 따르면 여기서 e는 pro로서 '같은 사람을 보았다'는 해석만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29a)는 중의적이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나 (29b)에서는 첫 번째 e는 앞의 선행어로부터 성분통어(c-command) 되지 않으므로 명사구-생략의 결과로서 '모든 사람들'을 복사하게 되므로 '존이 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봤다'는 해석이 된다.

명사구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첫 번째 해석인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는 해석만 가능하고 두 번째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새로운 제안

지금까지 우리는 Huang과 Abe의 영논항 분석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았다. Huang (1991)은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 있어서 영주어는 *pro*, 영목적어는 영주체의 이동으로 인한 변항(variable), 영목적어 가운데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사구-생략으로 인한 공백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Abe(2006, 2009)는 Hung의 영목적어 중 영주체의 이동에 의한 변항 분석에 있어서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Huang의 동사구-생략에 의한 영목적어 공백을 Abe는 명사구-생략으로 인한 공백으로 분석하더라도 동사구-생략에서 주장하는 병행(parallelism)에 의한 이완지시해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논항에서 명사구 생략으로 인한 공백을 판별하는 조건으로 선행어와 공백간의 성분통어 관계가 만족되지 않으면 명사구 생략으로 인한 공백이고 그렇지 않으면 *pro*로서 Abe는 문장 내의 선행어에 의해 결속(bound)되는 *pro*를 결속 *pro*로 칭하고 있다.

Abe가 명사구 생략 분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원칙 (31)의 타당성을 다시 고려해보자.

(31) Ellipsis cannot hold when the antecedent c-commands the ellipsis site.

(31)에 비추어서 아래 두 문장을 비교해보자.

(32) a. Pedro beats his donkey, and Juan does, too.

b. Every farmer beats his donkey, and Juan does, too.

(32a)는 중의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 즉 'Pedro가 자신의 당나귀를 때렸고 Juan도 Pedro의 당나귀를 때렸다'는 엄밀지시해석과 'Pedro가 자신의 당나귀를 때렸고 Juan도 자신의 당나귀를 때렸다'는 이완지시해석이 모두 가능하다(Heim 1990). 그 이유는 첫 번째 연결문에 나오는 대명사 'his'가 지시적 대명사로 해석될 경우는 엄밀지시해석이 가능하고, 결속변항의 속성을 지닌 대명사로 해석될 경우는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32b)에서는 (32a)와 분명히 같은 문장 구조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하자면 두 번째 연결문에 나오는 동사구내 생략된 공백이 선행어로부터 성분통어되는 구조를 형성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2a)의 경우와 달리 (32b)에서는 이완지시해석만

가능하다. 이는 대명사 'his'가 결속변항의 역할만을 하기 때문이다. 담화 상에서 앞에서 형성된 담화 문맥으로부터 대명사가 그것의 지시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구조에서 대명사의 지시어가 양화명사구인 경우에는 대명사가 양화명사구 연산자에 의해 결속되는 결속변항으로서 이완지시해석이 나오게 된다 (Hendrick 2005).

(32b)에서처럼 선행어가 두 번째 연결문에 나오는 동사구 즉 [beat his donkey]로 형성되는 생략된 공백을 성분통어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지시 해석만 가능한 경우를 (33)과 같은 영어의 예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의 문장을 다시 고려해보자.

(33) A farmer beats his donkey, and Juan does, too.

(32b)와 달리 주어라 존재양화사로 취급될 수 있는 비한정명사구로 사용된 (33)에서도 'Juan이 자신의 당나귀를 때린다'는 이완지시해석만 가능함을 알 수 있다.(여기서 비한정명사구인 'a farmer'가 일반적인 농부를 의미함으로써 전칭양화사의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a farmer가 지시적 표현(referring expression)으로 해석이 되어 화자가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33)은 (32a)와 같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32a)가 중의적 해석이 된다는 것은 대명사 his가 지시적 대명사(referential pronoun)와 결속 변항(bound variable)의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와 같은 담화맥락을 형성했을 때 한국어의 경우는 영어의 동사구 탈락 위치에 영논항이 나오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이다.

(34) 존은 자신의 당나귀를 때리고 빌도 e 때린다.

(35) 모든 농부들이 자신의 당나귀를 때리고 빌도 e 때린다.

(34)-(35)에서 영논항을 선행어가 성분통어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Abe의 분석에 의하면 이 경우는 모두 명사구 생략의 결과로서 이완지시해석만 가능하다는 예측을 하게 된다. 그러나 (34)는 일반적으로 '빌도 존의 당나귀를 때린다'는 엄밀지시해석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영어 예문 (32b)에 해당하는 (35)의 경우에는 '빌이 자신의 당나귀를 때린다'는 이완지시해석만 가능하다.¹⁰⁾ 이는 한국어도 영어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34)에서 '자신의'는 지시적 대명사와 결속변항 대명사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연결문에 나타나는 영목적어의 공백도 그것의 선행어가 지시적 대명사이면 지시적 대명사로 해석이 되고, 결속변항이면 결속변항으로 해석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

10) 익명의 논평자에 의하면 '모든 농부의 당나귀를 빌이 때린다'는 의미도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필자의 직관과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서 영목적어가 단순히 명사구 생략의 결과로 생긴 공백이 아니라 pro로서 '존의 당나귀'를 지칭하는 지시적 pro와 람다 운용자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의 기능을 하는 결속변항 pro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직관과 일치하는 두 가지 해석을 얻게 된다. (35)의 pro는 결속변항의 pro만이 가능한 이유는 첫 번째 연결문에서 전칭양화사에 의해 '자신의'를 결속하고 있는 각 농부가 소유하는 각자의 당나귀를 의미하므로 특정 당나귀를 의미하는 지시적 해석이 도출될 수 없으며 결속 변항에 의한 해석만 가능하다. 따라서 두 번째 연결문의 pro도 이완지시해석으로 '빌의 당나귀'를 의미하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Abe의 분석 기준인 문장 내에서 선행어와 영논항간의 성분통어의 여부에 따라 성분통어가 되면 일반적인 pro로, 성분통어가 되지 않으면 명사구 생략으로 구별된다는 기준은 (34)-(35)의 대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다음 문장들의 중의성을 설명하지도 못하고 있다.¹¹⁾

- (36) a. 존은 자신을 비난했다. 메리도 e 비난했다.
 b. 존은 자신의 부인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빌도 e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앞의 (34)-(35)의 경우와 같이 (36a-b)의 영논항은 공히 이완지시와 엄밀지시의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직관이다. 그러나 Abe에 따르면 이들 문장은 특히 (36b)의 경우는 동사구 생략 분석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지시 해석이 되는 이유를 들어 이 경우의 영논항을 명사구 생략의 결과로 도출된 것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들 문장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36a)의 목적어와

11) 한국어의 '자기가' 형태적으로 재귀사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 인칭대명사의 특수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성광수 1981, 정연창 2003). 다음의 예문들은 '자기가' 의미상 재귀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 a. 피터가 빌이 자기를 비판했다고 말했다.
 b. 준호는 영호가 자기를 보낼 것을 주장했다.
 c. 존은 자기가 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d. 영희는 자기한테 온 편지를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
 e. 중이 자기(제) 머리 못 깎는다.
 f. 철수는 영수와 자기의 집에 갔다.

(a-b)의 경우 '자기가'의 선행사가 종속절의 주어인 경우에는 재귀적 용법을 보이나, 주절의 주어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재귀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예문 (c-f)에서는 주어의 행위가 '자기'에게로 되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경우도 재귀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성광수 1981: 31-32).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본 논문에서는 '자기'뿐 아니라 '자신'의 경우도 일반 인칭대명사의 특수 용법으로 취급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36b)의 주어 자리에 있는 영논항은 pro로서 지시적 pro와 결속 변항 pro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전자는 엄밀지시해석을 후자는 이완지시 해석을 하게 한다.

Abe의 선행어와 영논항간의 성분통어 조건의 여부에 따라서 공백의 속성을 pro와 명사구 생략으로 식별하는 분석은 위의 예문들의 중의적 해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결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영논항의 속성을 성분통어의 가능성에 의하여 이분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분석임을 지적한다. 따라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는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의 영논항은 모두 pro로서 영어의 대명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¹²⁾ 이러한 주장은 Holmberg (2005)의 pro에 대한 견해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언어에 따라 대명사 내에 clitic이나 약대명사를 포함하는 언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듯이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서는 대명사의 하위범주에 pro를 어휘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어휘항목으로서의 pro는 영어의 대명사와 같은 양상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한다.

답화 문맥으로부터 pro의 정보를 제공받는 pro와 문장내의 선행어로부터 동지시에 의해 해석이 이루어지는 pro는 공히 영어의 지시적 대명사(referential pronouns)와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영어의 지시적 대명사에 해당하는 지시적 pro(referential pro)는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공히 나타나고 있다. 다음의 예문들이 포함하고 있는 영논항은 모두 pro로서 영어의 지시적 대명사에 해당하는 지시적 pro이다.¹³⁾

(37) a. [A man]_i walked in. He_i was very tall and everybody looked at him_i.

b. 한 남자가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pro_i 키가 컸고 모든 학생들이 pro_i 쳐다봤다.

(38) a. A: Who loves Mary₁ ?

B: Bill loves her₁.

b. A: 누가 메리를 보았니?

B: 존이 pro₁ 봤어.

(39) a. John_i said that Mary criticized him_i.

b. 존이 [메리가 ei 비난했다/때렸다고] 말했다.

12) 영어의 대명사가 지시적 대명사와 결속변항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pro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

13) Abe는 이와 같은 pro를 명사구 생략의 결과로 나타난 공백과 구별하여 결속 pro(bound pro)로 칭하고 있다. 명사구 생략의 경우는 이완지시해석이 가능하고 pro의 경우는 엄밀지시해석, 즉 지시적 해석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결속 pro로 칭하고 있다. 이 경우의 'a man'은 마치 한정명사구(definite noun phrase)의 경우처럼 특정인을 의미하는 해석이 되므로 그 다음 이어지는 답화가 도입하는 대명사의 선행어로 해석될 수 있다.

- (40) a. [존1이 [e1 메리를 보았다고] 말했다]
 b. 존은 메리가 보았다고 말했다.
 ① 존1은 [메리2가 [e2 e1 보았다고] 말했다] (e1=존, e2=메리)
 'As for John, Mary said she saw him.'
 ② 존1은[e1 [메리가 e2 보았다고] 말했다] (e2 ≠ 존)
 'According to John he said Mary saw someone.'

지시적 표현인 선행어가 영논항을 성분통어하는 (39)-(40)과 같은 문장 구조에서는 영논항은 지시적 *pro*의 속성을 지닌다. (39b)에서 내포절의 영목적어인 *pro*는 그것을 성분통어하는 '존'을 지칭하는 해석이 된다. 그리고 (40a)에서 내포절의 영주어 *pro*는 상위절의 주어인 '존'을 지칭하는 해석이 된다. (40b)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 번째 해석은 '존'은 주체어로서 내포절의 영주어 *pro*는 상위절의 주어 '메리'를, 영목적어 *pro*는 주체어 '존'을 각각 지칭하는 해석을 나타낸다. 두 번째 해석은 여전히 '존'이 문장의 주체어이면서 상위절의 영주어 *pro*의 선행어이다. 그리고 내포절의 영목적어 *pro*가 지칭하는 선행어는 문장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담화의 내용에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문장 단위가 아닌 담화문맥에서 언급된 지시적 표현을 영논항이 지칭하는 해석도 (37-38)의 예문들로부터 가능성을 알 수 있다.¹⁴⁾

문장 단위에서 선행어가 양화명사구인 다음의 예들을 영어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자.¹⁵⁾

- (41) a. Most of the teachers₁ said that they₁ would come this afternoon.

- 14)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지시적 표현과 후행하는 문장내의 *pro*인 영논항간의 동지시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Moon(1989)에서는 담화형태소(D-morpheme) D를 후행 문장의 문두에 설정하여 D를 통하여 선행담화로부터 주제가 되는 지시적 표현의 의미가 연결된다는 가정 하에 담화형태소 D가 영논항인 *pro*를 문장 내에서 결속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15) a. A man₁ meets an attractive woman₂. He₁ smiles at her₂.
 b. If a man₁ meets an attractive woman₂, he₁ smiles at her₂ (Eijck 2006)
 c. 남자₁는 매력적인 여자₂를 만나면 e₁ e₂ 쳐다본다.

(12a-b)에서 대용어인 대명사가 비한정명사구 'a man'의 영역의 범위를 벗어나 있으므로 'a man', 'an attractive woman'과 'he', 'she'를 각각 연결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한 이론이 담화표상 이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DRT) (Kamp 1981, Heim 1982)으로서 비한정명사구는 담화지시물(discourse referent)을 다음 담화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자유변항(free variable)으로 취급되며 양화사적 성격은 더 폭 넓은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와 같은 자유변항의 역할을 하는 비한정명사구는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담화에 나타나는 대용어의 선행어가 될 수 있다. 영어 예문 (12a-b)에 상응하는 한국어 예문 (12c)에 등장하는 영논항도 영어의 대명사와 같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b. Every mother₂ loves her₂ children.

(42) a. 대부분의 선생님₁이 e₁ 오늘 오후에 온다고 말했다.

b. 모든 어머니₂는 e₂ 자식을 사랑한다.

(41a-b) 영어 예문의 대명사는 선행어인 양화명사구에 의해 결속되는 변항으로서 '대부분의 선생님'의 그룹이 한꺼번에 오겠다고 말하거나, '모든 어머니' 그룹이 그들의 자식을 사랑한다는 그룹 의미(group reading)가 아니라 개별 의미(individual reading)를 도출한다. 그러므로 이들 대명사는 지시적 대명사와 구분하여 결속 대명사(bound pronoun)로 부른다. (41)에 해당하는 (42)의 한국어 예문에서 (42a-b)의 영논항은 Abe의 분석에 의하면 선행어와 성분통어 관계에 있으므로 통사적으로 pro로서 확인되므로 (42a-b)에서는 선행어가 지칭하는 같은 집합의 '대부분의 선생님'의 해석, 앞의 '모든 어머니'와 같은 집합의 '모든 어머니'로서 '모든 어머니 각자 자신의 자식을' 의미하는 해석이 올바르게 나온다(16).

(41-42)와 달리 (43)과 같은 문장은 소위 말하는 'donkey 문장'으로서 선행어가 대응어를 성분통어하지 않은 문장구조를 지니고 있다.

(43) a. Every farmer who owns a donkey₃ often beats it₃.

b. 당나귀₃를 소유하고/키우고 있는 모든 농부는 e₃ 자주 때린다.

(43a)에서 선행어 'a donkey'가 대명사 'it'을 성분통어하지 않고 있지만 의미론자들은 비선택적 결속(unselective binding)이 구조상으로 지배(structurally governed)되고 있으므로 분석하여 이 경우의 대응어를 결속 변항 대명사(bound variable pronoun)로 취급하고 있다(Heim 1982, Chierchia 1995).¹⁷⁾¹⁸⁾ 그러나 Abe에 의하면 (43b)에서 선행어와 영

16) pro가 변항의 해석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미론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굳이 Abe 분석을 약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17) (43a)에서 대명사의 선행어인 'a donkey'는 관계절 내에 깊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명사를 성분통어할 수 없기 때문에 통사적 구조상으로는 비결속(unbound)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미적 논리형태(i)을 보면 운용자에 의해서 비선택적으로 변항이 결속되기 때문에 결속변항 대명사로 지칭한다.

(i) $\forall x \forall y [[\text{farmer}(x) \ \& \ \text{donkey}(y) \ \& \ \text{own}(x,y)] \rightarrow \text{beat}(x,y)]$

18) a. The man who gave his paycheck₁ to his wife is wiser than the man who gave it₁ to his mistress (Karttunen 1969).

b. 자신의 월급₁을 아내에게 가져다주는 남자는 e₁ 애인에게 가져다주는 남자보다 더 현명하다.

위의 예문(a)에서 대명사 it이 정확히 his paycheck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앞의 his paycheck은 자신의 부인에게 월급을 가져다주는 남자의 paycheck을 의미하지만 뒤의 대명사 it은 엄밀히 말하면 앞의 paycheck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다. 월급을 부인에게 가져다주는 남자의 paycheck이 아니라 자신의 애인에게 가져다주는 남자의 paycheck이 되므로 서로 다른 의미이다. 따라서 이를 E-type

논항 사이에 성분통어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명사구 생략에 의한 공백으로서 '당나귀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농부는 또 별개의 당나귀를 때린다'는 이상한 해석을 하게 한다.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 있어서 선행어와 영논항이 성분통어 관계의 구조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사구 생략의 공백으로 분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에서 나타나는 주어, 목적어 자리의 영논항은 pro로서 그것의 선행어의 속성에 따라 지시적 pro와 결속 pro로 구분된다고 본다.¹⁹⁾ 선행어가 지시적 표현이면 지시적 pro로 선행어가 비한정 명사구로서 양화사적 속성을 지니는 경우는 결속 pro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한다. 나아가서 결속 pro는 또 다시 선행어가 영논항을 성분통어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속 pro와 결속 변항 pro로 구분되며, 성분통어 관계에 있으면 결속 pro 그렇지 않으면 결속 변항 pro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해야 함을 주장한다. 지시적 pro의 속성을 지니는 영논항은 엄밀지시 해석을 할 수 있고, 결속 pro나 결속 변항 pro의 속성을 지니는 영논항의 경우는 이완지시 해석을 가능하게 함을 제안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주어-목적어 탈락언어에 나타나는 영논항의 속성에 대해서 Huang과 Abe가 주장하는 영주제-변항 분석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나아가서 영논항의 공백이 명사구 생략에 의해 생성될 수 있다는 Abe의 분석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 후,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에서 나타나는 주어, 목적어 자리의 영논항은 공히 pro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아가서 한국어의 pro를 영어의 대명사의 속성과 비교 분석하여 한국어의 pro는 영어의 대명사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즉 영어의 대명사를 지시적 대명사(referential pronouns), 결속(변항) 대명사(bound(variable) pronouns)로 그 속성을 구분할 수 있듯이 주어-목적어 탈락 언어에 나타나는 주어, 목적어 자리의 영논항은 pro로서 그것의 선행어의 속성에 따라 지시적 pro와 결속 pro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선행어가 지시적 표현이면 지시적 pro로 선행어가 양화사적 속성을 지니는 경우는 비한정 명사구라 할지라도 결속 pro의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결속 pro는 또 다시 선행어가 pro인 영논항을 성분통어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속 pro와 결속 변항 pro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성분통어 관계에 있으면 결속 pro 그렇지 않으면 결속 변항 pro의 속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pronoun이라고 구별하여 부르기도 하지만 donkey 문장의 경우와 합쳐서 모두 결속변항 대명사로 부르기도 한다. 영어예문 (a)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예문 (b)의 영논항도 같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19) Choe, Hyon Sook(2005)에서도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pro*의 속성에 따라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데 지시적 *pro*의 속성을 지니는 영논항으로부터는 엄밀지시 해석을, 결속 *pro*나 결속변항 *pro*의 속성을 지니는 영논항의 경우는 이완지시 해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의적 해석이 발생한다는 것을 주장했다.

참고문헌

- 성광수. (1981). 국어(國語) 통칭대명사(通稱代名詞)와 재귀대명사(再歸代名詞). 국어국문학, 제86권
- 양동휘. (1980). 기능적 대화론.
- 양동휘. (1986). 한국어 대용사론.
- 정연창. (2003).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해석과 생략. 언어과학, 10(2).
- Abe, Jun. (2006). *Licensing conditions in ellipsis*. Ms. Tohoku Gakuin University.
- Abe, Jun. (2009). *Identification of null arguments in Japanese*. Ms., Tohoku Gakuin University.
- Chierchia, G. (1995). Individual-level Predicates as Inherent Generics. In *the Generic Book*, edited by Gregory N. Carlson and F. J. Pelletier: 125-175. The University Chicago Press.
- Choe, Hyon Sook. (2005). On (backward) object control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I*.
- Eijck, Jan van. (2006). 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Encyclopedia of Language and Linguistics*, Elsevier. Volume 3, pp. 660-669
- Evans, G. (1980). Pronouns. *Linguistic Inquiry* 11, 337-436.
- Heim, I. (1982).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Heim, I. (1990). "E-type pronouns and donkey anaphora". *Linguistics and Philosophy* 13, 137-178.
- Hendrick, Randall. (2005). Resumptive and bound variable pronouns in Tongan, in Heinz & Ntelitheos (eds.) *UCL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2, 103-115.
- Holmberg, Anders. (2005). Is there a little *pro*? Evidence from Finnish. *Linguistic Inquiry* 36, 533-564

- Huang, C-T. James.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 Huang, C-T. James. (1984). On the distribution and reference of empty pronouns. *Linguistic Inquiry* 15, 531-574.
- Huang, C-T. James. (1991). *Remarks on the status of the null object*. In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comparative grammar, ed. Robert Freidin, 56-76. Cambridge, Massachusetts: MIT Press.
- Kamp, H. (198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In: J.A.G. Groenendijk, T.M.V. Janssen, and M.B.J. Stokhof (eds.), *Formal Methods in the Study of Language. Mathematical Centre Tracts* 135, Amsterdam. pp. 277-322.
- Karttunen, Lauri. (1969). *Problems of Reference in Syntax*. Bloomington. IN.: Indiana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Kim, Soowon. (1999). Sloppy/strict identity, empty objects, and NP ellipsi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 255-284.
- Kuroda, S-Y. (1971). Remarks on the notion of subject with reference to words like *also*, *even*, or *only*. in *The annual bulletin of the research institute of logopedics and phoniatics* 4, 127-152. University of Tokyo.
- Lee, H-B. (1987). On Empty Categories in Korean. *Linguistic Journal of Korean* 12, 261-94.
- Lee, Hyunoo. (1997). Towards an Optimal Theory of Referential Dependency.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7(1), 163-201.
- Massam Diane. (1992). Null objects and non-thematic subjects. *The Journal of Linguistics* 28, 115-137.
- Moltmann, Friederike. (2006). Unbound Anaphoric pronouns: E-type, dynamic, and Structured-Propositions Approaches. *Synthese* 153, 199-260.
- Moon, G-S. (1989). *The Syntax of Null argume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Moon. G-S. (1991). Identification of Null Argument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2(1).
- Oku, Satoshi. (1998). *A theory of selection and reconstruction in the minimalist perspectiv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nnecticut.
- Otani, Kazuyo and John Whitman. (1991). V-raising and VP-ellipsis. *Linguistic Inquiry* 22, 345-358.

- Shim, Sang-Wan. (2003). Comparative Study on pro-drop: Pedagogical Approach. *Revista Iberoamericana*, 14, 113-132
- Takahashi, Daiko. (2006). Apparent parasitic gaps and null arguments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5, 1-35.
- Takahashi, Daiko. (2008). Quantificational null objects and argument ellipsis. *Linguistic Inquiry* 3, 307-326.
- William, Edwin. (1977). Discourse and logical form. *Linguistic Inquiry* 8, 103-139.

문귀선

136-792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2가 389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부

02-760-4390

sunmoon@hansung.ac.kr

Received: 2 February, 2010

Revised: 10 March, 2010

Accepted: 16 March, 2010